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 사목협의회

- 일 시 : 06월 24일 / 19:40
- 장 소 : 강당

◎ 성물방 신간 안내

- 신간 “구약 성경과 작은 신들”이 입점하였습니다.

◎ 알 림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단식모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주(6월 27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6/20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06/27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결식아동 모집/후원 *

- 무료 점심 나눔
 - 장 소 : 가리봉동
 - 일 시 : 매주 토요일 / 11:00~14:00
 - 방학시 : 매일 / 11:00~14:00
 - 결식아동 추천 받습니다.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06/2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0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6월09일 ~ 06월15일)

교 무 금	6,678,000원
주일헌금	3,793,200원
시설헌금	김OO 5만원
감사헌금	김OO 5만원 전을경 5만원 김옥순 5만원 장OO20만원 서우택50만원 김성만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6/20	이영민	조훈환 최상림	최웅조 정재경
06/27	권태희	김영균 도현만	장익근 백희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19:00
06/20	김인기	박형순	이운영 최석준	오광운	이성일
06/27	박승환	오광운	장인홍 최승일	이성일	이운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굴종과 자기 비하

51. 일부 경제 강대국들이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문화적 모델로 제시됩니다. 저개발 국가들은 그러한 대신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들에서 출발하여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피상적이고 슬픈 향수는 창조 대신 모방과 구매로 이끌며 국가적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의 번영하는 부문들은, 그리고 때로는 가난을 갓 벗어난 사람들은 고유한 특징과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만병의 원인이라도 되는 양 자기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2. 자존감의 파괴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세상을 균일화하려는 경향 뒤에서 이러한 낮은 자존감을 이용하는 권력의 이익이 자라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매체와 관계망을 통하여 가장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려 획책합니다. 금융 투기와 착취의 기회주의는 여기에서 이득을 얻지만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맙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 민족의 문화를 무시하는 일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세월이 지나도 자유롭게 받아들여지고 유지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을 고안할 수 없게 합니다.

53. 다음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뿌리가 없다는 느낌,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보다 더 나쁜 소외의 형태는 없습니다.” “땅이 비옥해지고 민족이 결실을 맺으며 미래를 창출하려면, 구성원들 사이에 소속감을 증진하고, 세대 간 통합의 유대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간 통합의 유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려야 합니다.”

희 망

54. 무시할 수 없는 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에도, 다음 장들에서 저는 많은 희망의 여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인류에게 좋은 씨를 뿌려 주십니다. 최근의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응답한 수많은 길동무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공동 역사의 결정적 사건들을 용감하게 씨 내려온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엮여 있고 그들을 통하여 지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 상점 종업원, 환경미화원, 요양사, 운송 종사자, 기본 서비스 제공자와 보안 요원, 자원봉사자, 사제와 수도자 등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55. 저는 모든 이를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 상황과 역사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실재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갈증, 갈망, 충만에 대한 열망, 성취된 삶에 대한 열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한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열망, 우리 마음을 채워 진선미, 정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을 들어 높이는 것을 이루려는 열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 희망은 담대합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해 주는 위대한 이상에 열려 있도록, 희망은 시야를 제한하는 개인의 안위, 사소한 안전이나 보상을 넘어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니다.